

세계 최초, 인터넷기반 전자 출원 100만건 돌파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1999년 1월 2일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제도를 시행한 지 4년 6개월만인 2003년 7월 1일에 전자출원이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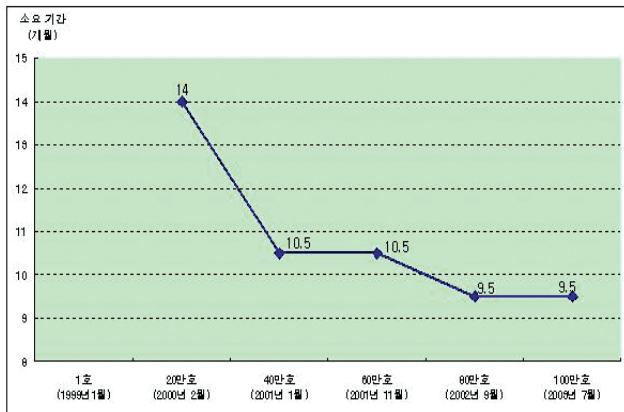
이처럼 4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자출원이 100만 건을 넘어선 것은 우리나라의 IT 인프라, 인터넷 활용능력 그리고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의 우수성이 서로 어우러져야만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세계 지식재산권 정보화 분야에서 선두주자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100만번째 전자출원의 영광은 "기술기 센서를 이용한 3차원 이미지 조망 기능을 갖는 핸드헬드(hand held) 장치 및 이를 이용한 3차원 이미지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특허출원한 (주)두모션(대표이사 허운)이 차지했다.

(주)두모션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자산"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직원의 80% 이상을 연구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6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주)두모션은 2002년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잘 알려진 기업이다.

한편, 특허청이 운영중인 전자출원 시스템(특허넷 시스템)은 특허청의 「모든 업무」, 「전체 과정」을 100% 전산화한 것으로, 2002년말에 실시한 한국전산원의 정보화 성과측정 결과, 매년 2,300여억원의 행정 및 민원비용을 절감하였고, 심사기간 역시 '98년에 28.9개월에서 '02년에 22.6개월로 단축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전자출원 20만호별 소요 기간)

또한, 특허넷 시스템의 일부인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를 통하여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을 매년 1조 8천억원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출원 제1호는 1999년 1월 2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이며, 이후 14개월만인 2000년 2월에 20만호가 달성되었으며, 40만호와 60만호는 각각 10.5개월, 80만호와 100만호는 각각 9.5개월로 매20만호별로 달성기간이 점차 단축되고 있다.

이렇게 전자출원율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의 높은 인터넷 사용율, '98년 특허청 대전시대를 대비한 특허넷 시스템의 개발 및 지속적인 전자출원 시스템의 개선, 사용자 교육 및 전자출원 진흥을 위한 특허청의 각종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한편, 7월 10일(오전 11시) 하동만 특허청장은 전자출원 100만호 돌파를 기념하여, 100만호 전자출원자인 (주)두모션과 본 출원을 대리한 이상헌 변리사(한누리 특허법률사무소) 및 특허넷 시스템을 개발한 LG CNS 정병철 사장과 HW 공급자인 한국 HP 최준근 사장을 대전으로 초청하여, 100만번째 전자출원 기념패와 기념품 전달 및 특허넷 시스템 운영 유공자에 대한 특허청장상을 수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하 청장은 대한민국의 특허넷 시스템이 세계 선진 특허청간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세계 최초의 100만번째 전자출원 달성은 특허넷 시스템의 완성이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우수한 특허출원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져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이루는 근간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2005년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특허넷Ⅱ 시스템 역시, 고객의 편의를 기본으로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개발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구분	한 국	일 본	유럽(EPO)	미 국
전 자 출원율	특허:93.9% 실용:77.9% 상표:80.5% 의장:76.6% (’02년 기준)	특·실:97% 상표:99% 의장:90% PCT:99% (’02년 기준)	특허:1% (’01년 기준)	특허:2% 상표:25% (’01년 기준)
(전체)	83.5%	94.1%	1%	10.9%
전 자 출원 개시일	4권:’99.1월	특·실:’90.12월 의·상:’00. 1월	특허:’00.12월	특허:’00.10월 상표:’98.10월

(주요국 전자출원 현황)

【 참고자료 】

특허넷의 경제적 효과

- 연구기관 : 한국전산원
- 연구 분석 방법
 - 측정 대상 : 특허넷의 비롯한 특허청 특허행정 정보화 전반
 - 측정 영역 : 4개 영역
 - 내부 행정효율성 향상 / 대민서비스 개선 / 대산업계 기술개발 촉진 / 국제적 위상 제고
- 연구 결과(2001년 기준)
 - 2,291억원의 행정 및 민원인 비용 절감
 - 내부 행정 효율성 향상 : 338억원
 - 대민 서비스 개선 : 1,953억원
 - 심사처리 기간단축 : 22%(6.3개월) : 28.9('98) → 22.6('02)
 - 1조 8,043억원의 기업 연구개발비용 절감 효과
 - 연구개발 기간 단축 : 21.1%
 - 연구개발 비용 절감 : 11.2%
 - 16조 1,105억원의 연구개발비 예산에 적용시 1조 8,043억원의 효과 추산

(특허행정정보화의 연도별 경제적 성과 종합)

(단위:백만원)

성과 영역	성 과 지 표	1998	1999	2000	2001	합 계
내부행정 효율성향상	특허행정 비용절감	12,880	19,623	17,142	22,102	71,747
	심사행정 효율향상	12,229	12,641	11,704	11,708	48,282
	소 계	25,109	32,264	28,846	33,810	120,029
대민서비스 개 선	전자출원을 통한 비용절감	-	6,301	9,842	13,100	30,359
	인터넷검색을 통한 비용절감	4,612	22,498	81,138	182,183	214,244
	소 계	4,612	28,799	90,980	195,283	244,603
합 계	(내부행정+대민효과)	29,721	61,063	119,826	229,093	439,703

- 비용/효과 분석
 - 비용 : '92년 이후 2001년까지 총 1,902억원 투입
 - 효과 : '98년 이후 경제적 효과 약 4,400억원
 - 2001년 대민서비스효과(1,953억원)만으로 투자비용 초과

(특허행정정보화 추진의 경제적 비용과 효과 대비)

(단위:백만원)

구 분	'92~'94	'95	'96	'97	'98	'99	2000	2001	합 계
비 용	6,251	9,429	11,275	18,537	31,504	25,100	40,800	47,400	190,296
효 과	청내	-	-	-	25,109	32,264	28,846	33,810	120,029
	대민	-	-	-	4,612	28,799	90,980	195,283	319,674
	합계	-	-	-	29,721	61,063	119,826	229,093	439,703


전자출원 100만건 돌파 기념 KIPRIS 정보검색 이벤트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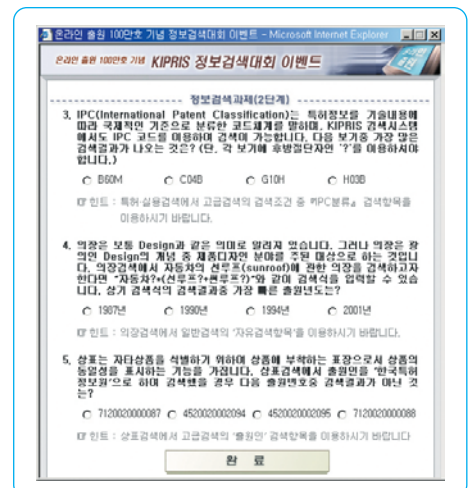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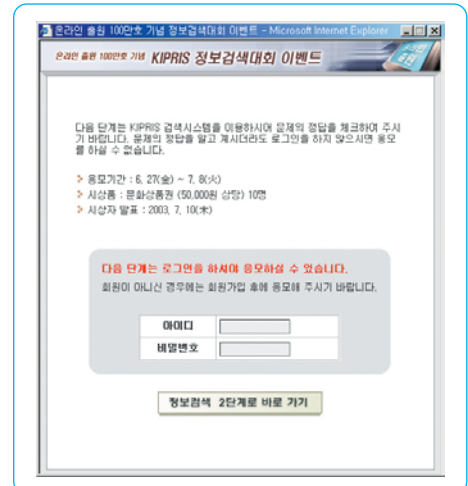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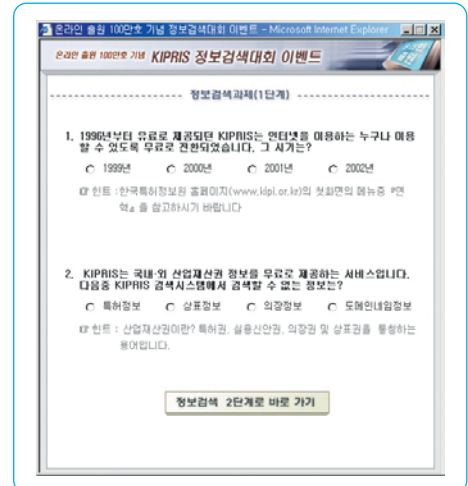
지난 7월 1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출원 100만건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실시한 한국특허정보원 KIPRIS 정보검색 이벤트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1주일간 성황리에 진행됐다.

온라인 출원 100만호 달성을 계기로 한국특허정보원 KIPRIS의 이미지 제고 및 일반인의 온라인 출원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는 총 600여명이 응모하여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이벤트는 KIPRIS 이용자라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과제를 구성하여 이용자의 자연스런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자가 KIPRIS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검색과제를 해결한 후 정답을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단계 정보검색과제로 KIPRIS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2개 문항이 출제됐으며, 2단계 정보검색과제로는 로그인 후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이벤트에는 총 10명이 당첨되어 각각 문화상품권이 지급됐다.

한편, 한국특허정보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벤트 실시를 통해 이용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유도해 낼 계획이다. 



(KIPRIS 정보검색 이벤트 당첨자 명단)

번호	이름	주소
1	김미숙	울산 동구 방어동
2	김영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3	류왕수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4	박량	서울 강남구 역삼동
5	박상준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6	배혁	충남 논산시 등화동
7	오인수	경기 시흥시 대야동
8	이상헌	강원 원주시 단계동
9	정석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10	한미진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특허청, 일본과 특허심사 협력체제 기반 마련


한국 특허청은 일본 특허청과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양국에 모두 출원된 32건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공동으로 시범적인 특허심사를 수행한 후 그 내용을 비교한 결과, 7건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기로 하고 25건에 대하여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등 양국의 특허심사 결과가 일치하였으며 특히, 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된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불특히 이윽까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의 시범 특허심사 사업은 한국 일본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특허권을 부여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적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의 전 단계로 수행되고 있다.

최근 세계 각국은 IT, B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특허심사처리 장기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중복된 특허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에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미국, 유럽특허청은 3개 국가 중 어느 하나의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특허청에서도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제도를 도입하기로 '97년에 합의하였고 이를 위한 3개국 특허청간의 공동 특허심사사업이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수행된 바 있다. 또한 미 일 양국 특허청은 특허심사업무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양국에 모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결과를 상호 이용하기로 하고 2003년까지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본과 2000년부터 공동 특허심사를 수행해 온 것이며 중국과는 올해부터 공동의 특허심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한 일간의 공동 특허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양국간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 제도의 도입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양국간 특허심사기간 장기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특허청은 특허심사 협력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자료】

■ 한 일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

- 추진경위
 -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의 전 단계로서 양국 심사관간 신뢰구축 목적(한 일 특허청장회의 합의사항, '99. 11)

- 사업내용
 - 심사결과 상호비교 : 양국 공동출원의 독자적 특허 심사 및 결과비교
 - 심사관 교류 : 상호 방문에 의한 심사결과 토의, 심사환경 파악
- 사업결과
 - 제1차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2000)
 - 대상분야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 대상건수 : 8건
 - 사업결과 : 8건 모두 특허성 판단 일치
 - 제2차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2001)
 - 대상분야 : 유기화합물
 - 대상건수 : 8건
 - 사업결과 : 8건 모두 특허성 판단 일치
 - 제3차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2002)
 - 대상분야 : 반도체 분야
 - 대상건수 : 8건
 - 사업결과 : 8건 모두 특허성 판단 일치
 - 제4차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2003)
 - 대상분야 :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Vehicle) 분야
 - 대상건수 : 8건
 - 사업결과 : 8건 모두 특허성 판단 일치
- 사업평가
 - 양국 특허심사 능력 및 환경이 상호 신뢰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
- 향후계획
 - 사업대상 국가를 미국, 유럽, 호주 등으로 확대할 계획임


■ 한 중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

- 추진경위
 - 「특허심사결과 상호인정」의 전 단계로서 양국 심사관간 신뢰구축 목적(한 중 특허청장회의 합의사항, '02. 4)
 - 사업내용
 - 심사결과 상호비교 : 양국 공동출원의 독자적 특허심사 및 결과비교
 - 심사관 교류 : 상호방문에 의한 심사결과 토의, 심사환경 파악
 - 사업결과
 - 제1차 공동선행기술조사사업(2003)
 - 대상분야 : 의약품
 - 대상건수 : 3건
 - 사업결과 : 3건 모두 특허성 판단 일치
- ※ 금년 하반기에 추가적인 사업이 수행될 예정임

한국,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그룹(IPEG) 의장국 선임

한국은 2003년 7월 8일~9일 양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17차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지식재산권전문가그룹(IPE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으로 선임되었다. IPEG는 APEC 역내의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APEC 산하의 지식재산분야 위원회로, 지난 1996년 창설된 이후 17회에 걸쳐 아·태지역내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APEC 기구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위원회 중 하나로 손꼽혀왔다.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협상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세계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APEC IPEG 의장국에 한국이 선임된 것은, APEC 지식재산권 분야의 우리 정부 총괄책임부서인 특허청(청장 하동만)이 심혈을 기울여온 지식재산행정의 세계화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임과 동시에, 향후 지식재산권 분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특허청은, 국제감각이 뛰어나고 협상, 조정 능력을 갖춘 후보자를 곧 선정하여 APEC에 그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며, 차기 의장은 내년 4월 열릴 예정인 제18차 IPEG 회의부터 2년 임기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허청,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 체결

하동만(河東萬) 특허청장과 고메즈(Mr. M Gomez)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회장은 지난 7월 7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유럽기업들의 한국 진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분야에서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관한 업무협력협정(양해각서 : 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체결로, 유럽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에 대하여 기업하기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특허청의 적극적인 지식재산 정책 수행에 대한 대내외 인식 제고가 기대된다.

특히, 유럽기업들이 한국투자시 지재권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럽기업들의 對한국 투자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무협정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 및 무역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양기관간 업무협력 협의 창구(Contact Point) 지정, 실무자간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지식

재산관련 정보 및 의견교환, 우리청 지재권관련 정책 및 활동을 EUCCK 회원기업들에게 홍보한다는 내용 등이다.

협정체결에 앞서, 하동만 청장은 지재권 보호를 포함한 지재권 환경의 지속적 정비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는 인식 하에 발명가 및 기업들의 기술 및 투자가 신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특허청은 최대한 지원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EU를 비롯한 외국기업 및 투자자들이 더 많은 투자 및 기업활동을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고메즈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에게 한국정부의 지재권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함께 한국과 EU간 지재권제도의 상호이해 및 협력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가교역할의 수행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MPEG 및 IEEE1394 국제특허풀 기술 분석

오늘날의 첨단 기술은 순간적인 발상에 의한 것보다는 장기간의 연구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몇 건의 특허권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80년대부터 선진국의 기업들은 완전한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포럼(forum)을 통해 규합하고,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재권을 특허풀(patent pool)로 연합하여 관리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이 결성되는 포럼은 다국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당 기술을 국제표준화하며, 지재권의 행사를 특허풀로 단일화하는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해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 MPEG(moving pictures experts group)이나 IEEE1394 등의 포럼과 특허풀 등을 들 수 있으며, 해당 지재권들은 원천기술에 관한 여러나라의 특허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ETRI 등의 기업, 연구소 등이 국제 포럼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MPEG-4 기술의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들이 다수 채택되어 현재 표준화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 관련 지재권들은 아직도 대다수가 응용기술에 치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자면, 멀티미디어 정보를 압축하고 복원하는 원천 기술의 지재권이 외국 포럼과 특허풀의 소유인데 반해, 이를 응용한 전송장치나 영상기기들에 관한 응용기술 분야에 우리나라의 특허들이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응용기술의 지재권을 확보한 제품이 시장을 석권하더라도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로열티)는 면할 수가 없으므로, 원가 상승 등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휴대폰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3위이지만 통신방식을 원천기술 특허로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


사용료 지출이 국내 매출액의 5.25%, 수출액의 5.75%로 국내 상장기업 모두의 평균 순이익률을 넘는 비중이란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보통신 및 IT분야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재고되어야 한다. 적어도 원천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개발하여, 그 결과를 세계 각국에 개량된 원천기술로서 보다 많이 출원하고 권리화하여 국제기술 포럼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 심사4국 전자심사담당관실에서는 지난 5월부터 국제 특허풀에 가입되어 있는 특허들을 분석하고, 그 기술의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개발하기 위해 『국제 특허풀 기술에 대한 특허분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3년도 사업에서는 MPEG-2, MPEG-4 및 IEEE1394 국제 특허풀의 지재권을 대상으로 하며, 2003년도 사업의 결과는 11월말 발표될 계획이다.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수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목표는, 계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천 기술의 발전 추이 및 세부 사항과 개별 특허풀의 지재권 분석 내용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업의 결과물은 첨단 기술의 국제 전략 수립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제 특허분쟁 및 라이선스 협상 등에 있어서도 핵심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향후, 국경 없는 지재권을 둘러싼 국제적 이해관계는 보다 치열하게 대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첨단 기술의 우수한 응용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업계에서는 국제 포럼과 특허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고>

- MPEG(moving pictures experts group)
동화상 전문가 그룹(Motion Picture Experts Group)으로 불리며, 1988년 설립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압축 및 복원 기술에 관한 포럼이다. 비디오 CD등에 사용되는 MPEG-1, DVD로 보급되고 있는 MPEG-2 기술을 국제 표준화하였으며, 현재 MPEG-4 및 MPEG-21 등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 IEEE1394
IEEE1394는 애플사와 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가 공동으로 제창한 **고속 데이터 전송 규격**으로 FireWire라는 프로젝트명으로 개발되었다. 1986년부터 연구되어온 IEEE1394는 미국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에서 1995년 12월에 공식으로 협약되었고 그것을 표준화한 것이 IEEE1394이다. IEEE1394a, IEEE1394b 등의 기술이 표준화 완료되어 있고, 현재 무선 전송을 위한 규격화 활동 중이다.

이제는 인터넷 세상,
- 모든 중개는 클릭 한번으로 해결 -

국내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널리 보급되면서 2002년 12월 기준으로, 만6세 이상 인구 중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59.4%이며, 인터넷 이용자수는 26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이용률) (단위:천명,%)

구 분	2000.12	2001.6	2001.12	2002.6	2002.12
이용자수	19,040	22,230	24,380	25,650	26,270
인터넷이용률	44.7	51.6	56.6	58.0	59.4

(자료:한국인터넷 정보센터 2003.1)


이에 따라, 인터넷 중개 관련 특허출원건수도 1999년에 12건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230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인터넷 중개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중개 관련 특허출원 추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연평균 증가율
특허출원건수	13	230	100	20	15.4%
누 계	13	243	343	363	-

주 1) 자료 : 특허청 특실검색시스템 DB
2) 인터넷 중개 관련 특허출원은 2000년을 정점으로 점차 안정화됨

한편, 인터넷 중개 서비스 이용 사례를 보면, 부동산, 광고, 물류 등 일반 상거래 중개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중개 서비스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전자입찰, 사교육비 부담의 경감과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과외 중개, 구인자와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취업 중개 서비스 등이 이용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인터넷 중개 관련 서비스는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지능적으로 결합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주)}과 연계하여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사람을 포함한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물들을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결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오프라인 중개와 온라인 중개가 유비쿼터스 서비스로 통합되어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은 Mark Weiser가 최초로 개념화한 것으로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인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는 개념

하나의 출원서로 전세계 특허출원 효과


해외에서의 특허획득 절차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최근 특허청은 출원인이 해외에서 보다 용이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특허법시행규칙 등)을 급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획득이 가능한지를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국제출원절차에서는 출원인이 특허 반기를 희망하는 국가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야만 하였고, 또한 특허획득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제조사기관에서 발행한 선행기술 조사결과 외에도 별도의 국제예비심사 청구 절차를 밟아 특허성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하여 국제출원서 제출만으로 모든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회원국가가 자동으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국제조사단계에서 국제예비심사 수준의 특허획득 가능성에 대한 판단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출원인은 조기에 출원 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무분별한 예비심사 청구를 자제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허협력조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조약의 모든 회원국도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급년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기 위한 금번 관련 법령의 개정은 올해 하반기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KIPRIS 검색가능 최종 데이터 현황

(2003. 7. 21 현재)

구 분	종 류	기 준 일	정보제공범위	구 분	종 류	기 준 일	정보제공범위
특 허	공개서지	공 개 일	2003. 7. 12	의 장	등 록	공 고 일	2003. 7. 9
	공고서지	공 고 일	2003. 7. 12		공개(조기)	공 개 일	2003. 7. 12
실 용	초 록	공 보 일	2003. 7. 12	심 판	1심 ~ 3심	청 구 일	2003. 7. 8
	전문이미지	공 보 일	2003. 7. 12	4권리	등 록	등 록 일	2003. 7. 12
상 표	서지/이미지	방식심사일	2003. 7. 8	4권리	중간처리	서류접수일	2003. 7. 12
특 허	생명공학	출 원 일	1980 ~ 2000	특 허	KPA	등록·공고	1979.1 ~ 2000.10
						특허공개	2000.1 ~ 2003.2

Patent 21 2003년 7월호

(통권 제49호)

등록번호 : 서울 라09257
 발 행 : 한국특허정보원
 발행 및 편집인 : 민 경 탁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편집위원 : 이재정, 강치운, 노성열
 기 획 : 최 승 중
 광고문의 : 기획팀 (02-3452-8144)
 디 자 인 : IDO (02-3445-9849)
 인 쇄 : 삼원정판사

특허기술정보서비스 : www.kipris.or.kr

선행기술조사서비스 : www.chosa.or.kr



전화 : (02)3452-8144 FAX : (02)3453-5951